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백산장학재단, 청소년 장학금 전달

총 35명에 2950만원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청소년 3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14일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당에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신년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차복순 명창의 국악공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초전법륜경 봉독, 신년하례, 장학증서 수여, 법어, 발원문 낭독, 식후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단암사 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내외,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재단은 동국대부속 금산고 1학년 정양희 학생 등 고등학생 11명과 고려대학교 1학년 김소은 학생 등 대학생 24명 총 35명에게 2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래하는 청년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들은 앞서 1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영 스님은 법어에서 "늘 지역인재 불사에 대한 원을 세우고 출가 50년, 세납 70세를 맞는 2010년 백산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며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불자들 기도발길 이어져

미륵대재 · 700일 지장기도

우리나라 3대 지장성지로 알려진 전북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에 새해벽두부터 불자들의 기도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산내암자인 도솔암(감원 도완)은 1월 16일과 17일 각각 700일 지장기도 회향 및 800일 기도 입재법회와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경우 스님과 불학승가대학 학인 스님 등 대중스님, 불자 200여 명은 성도재일을 맞아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철야정진을 마치고 7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위〉

불학승가대학장 재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회향은 산스크리트어로 방향을 전환한다, 멈춘다, 완성한다, 증장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나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700일 기도를 회향한 대중들은 800일을 향해 기도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도솔암(감원 도완) 16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솔암 마애불 앞 특설법당에서 철야기도 정진에 동참한 100여 명의 불자들과 새해 첫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미륵대재에서 불자들은 병신년 새해 저마다의 소원을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燈으로 밝힌 내 마음, 연등회서 만나요"

광주불교聯, 일반인 위한 전통등 강습회

전통한지에 물감을 들인 전통등(燈)의 아름다움은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불교계에서 이어온 전통등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1~2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서울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6빛고을관등회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 참여한 50여 명은 전영일 공방작가 등 6명의 전문가 지도 아래 4개의 장엄등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들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 만들기에 몰두했다. 첫 날은 등의 골조를 만들었다. 생소한 장비를 다루거나 철사를 구부리고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통해 차츰차츰 등의 윤곽을 잡았다. 이후 등에서 빛을 발하는 전기장치를 넣어주는 작업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첫날 만든 골조에 한지를 붙이는 배접을 실시했다. 배접은 골조의 각 마디마다 잘게 나누어 붙이는 과정으로 배접이 끝나야 비로소 제대로 된 등의 형태가 나온다.

셋째 날에는 배접을 마친 등에 색을 입혔다. 채색은 한지에 물을 들이듯이 한국화 물감을 입혔다. 참가자들은 한지

21~23일 연등회보존위 지원 받아
법륜·달마등, 캐릭터 라바등 눈길
연희단 율동 즐기며 분위기 돋워
"불교전통문화 활성화 계기 되길"

첫날 작업에서 참가자들이 복주머니등 골조를 제작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로 연하게 번지는 물감을 바라보며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작업 중간에는 봉축행사에 참여할 연희단의 율동을 다함께 즐기며 흥을 돋웠다.

3일간의 작업을 통해 불교의 상징인 법륜등과 달마등, 복주머니등이 참가자들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등으로 재현한 라바등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 전통등기획단장 혜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원(願)을 세워서 장엄들을 만드는 과정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며 "오랜 기간 전승돼 온 불교전통문화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전통등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통등강습회를 계기로 등 만들기 전문팀을 구성하고, 사찰별 행진등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도 쌍계사, 유화물감 벽화 대거 발견

총 19점 중 일부는 훼손, 수분 침투 없어 보존성 높아

최근 진도 쌍계사 대웅전에서 서양화 주재료인 유화물감으로 그린 벽화가 대거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통 전통탱화는 천연안료를 사용해 색을 입히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까지도 전통안료 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한 탱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진도 천년고찰 쌍계사(주지 법오)는 1677년 조성된 대웅전을 지난해 8월 해체복원 작업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해당 벽화를 발견했다. 이에 적외선 카메라 등 과학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벽화에는 천연안료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불화와 달리 서양화에 주로 사용하는 유화물감이 발견됐다. 벽화에 쓰인 안료를 일부 채취해 성분 분석한 결과 19세기 서양유화물감에서 주로 쓰인 아연, 크롬, 바륨 등이 발견돼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20세기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벽화는 섬세한 밑그림에 화려한 색으로 표현하는 탱화와 달리 굵은 붓터치가 돋보인다. 붉게 회벽칠로 가려져 있던 벽체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벽화는 총 19점으로 일부는 훼손됐지만 유화물감을 재료로 해 수분이 침투하지 않아 대부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진도 쌍계사가 대웅전 복원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벽화 중 일부.

주지 법오 스님은 이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서구에서 수입된 고가의 안료는 경성에서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진도에 수입 안료로 불화를 그렸다는 것은 당시 유력인사의 후원이 있었거나 서양미술을 공부한 초창기 1세대 화가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 안료와 기법으로 그린 벽화불화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 관련기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불교신행단체협, 새해 전법 다짐

남원지역 9개 신행단체로 구성된 남원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윤평호)가 1월 1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불교발전과 새해 전법을 다짐하는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윤평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심을 모아 새해에는 새롭게 전법을 펼쳐나가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시린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위를 보살피는 한 해를 보내자"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정찬 불자가 조계종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반영자 불자가 태고종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정순희 불자와 양경환 불자는 조계종17교구장상, 박명규 불자는 남원사암연합회장상, 강석훈 포교사는 포교사단장을 수상했다.

초청법사로 등단한 암도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육바라밀의 덕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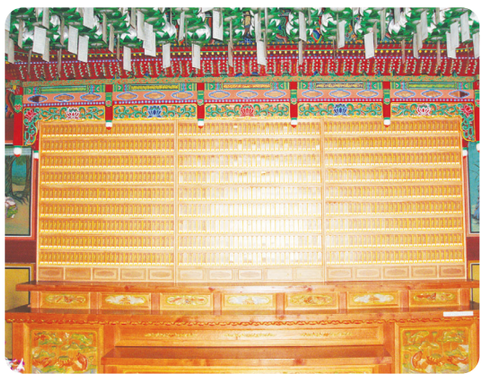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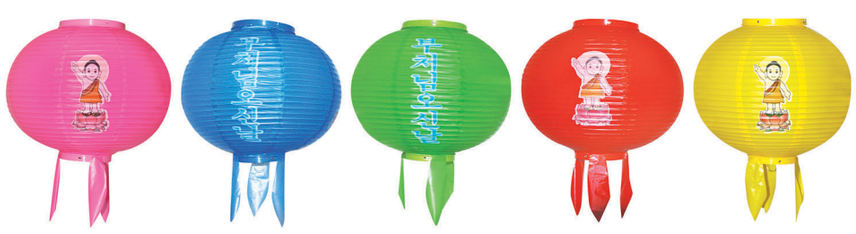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